

사립학교, 교육청 위탁 없인 교사 채용 불가

광주교육청 채용 투명성 강화 '교원 관리계획' 시행 법인협·학교측 "이사장 권한 침해 수용 못해" 반발

교육청의 '위탁채용' 전행에 응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교사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사립학교측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교육청과 다른 입장을 지닌 사립학교는 정교사를 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사립학교 내 기간제 교사들의 정교사 전환도 힘들어진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신규 교사 채용 절차와 추진 계획을 담은 '사립 중등학교 교원 정·현원 관리계획'을 69개 사립학교(중 25개·고 42개·특수학교 2개)에 통보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 계획은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공립학교 등등교사 임용시험'에 위탁,

신규 교사를 선발하거나 ▲학교법인과 교육청, 또는 3개 이상 사립학교 법인이 공동 주관으로 선발하는 방식 등 3가지 채용 계획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위탁 채용'을 따르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정교사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교육청 입장이 담겼다. 교육청은 또 사립학교 측과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을 달리해 갖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측은 그러나 '사학의 건학 이념과 학교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한

국 사립 초·중·고 광주법인협의회는 '이사장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나머지 사립학교들도 비슷하다. 교육청 '위탁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교사를 채용할 수 없어 신규 교사를 기간제로만 충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칫 전체 사립학교 교사(3421명) 중 20.2%인 기간제 교사(690명) 비율이 늘어나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립학교 내 기간제 교사들의 정교사 전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청이 채용 비리와 부실 운영 등으로 비판을 받은 사립학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한 축인 사학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통제하려 고만 한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정원 외 과원 교사에 대한 사학법인 활용 계획이 교육청과 다를 경우 해당 교사의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침도 사립학교측에 통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억의 '뽕뽕다리' 다시 놓인다

남구, 학림교~방림교 중간 50m 연말까지 인도교 추진

현대식 교량에 밀려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던 광주전 '뽕뽕다리(사진)'가 인도교로 다시 재건된다.

광주시 남구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남광주 일대 인도교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뽕뽕다리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발판으로 널리 쓰였던 구멍뚫린 강판을 상판으로 사용해 '뽕뽕다리'로 불렸다.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 방림동 주민이 이용했던 뽕뽕다리는 1987년 철근 콘크리트 방림교가 들어서면서 철거됐다.

남구는 방림동 주민 또는 학동 방면에서 방림초교를 오가는 학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인도교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광주전을 건너기 위해 학림교에서 400m가량 떨어진 방림교나 징검다리를 이용하고 있어 보행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재건할 인도교는 학림교와 방림교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 남구는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길이 50m에 폭 3m 규모로 사라진 뽕뽕다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

건조한 봄...산·들 불조심

14일 광주·전남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에 광주와 장흥, 화순, 완도, 해남, 강진, 보성, 장성, 담양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순천, 여수에는 건조특보가 내려

졌다. 기상청은 14일 광주 낮 최고기온 11도, 순천과 광양이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15일에는 담양과 화순 낮 최고기온이 13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봄이 왔어요' 13일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봄을 맞아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광장 인근 화단에 봄꽃을 심고 있다. 북구는 이달 말까지 구청 주변 가로화단에 봄꽃을 심을 계획이다. /최원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5 해질 18:39
달출 20:15 달몰 07:41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 Korea, including Seoul, Gyeongju, and Jeju.

Table with tide information (해일, 조수) and weather icons for different times of the day.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주간 날씨) showing dates and weather icons.

"무등산 산림 복원 시민 손으로"

내달 1일 나무심기 행사

"무등산에 우리 가족 이름표를 단 나무 한그루 심으세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다음달 1일(토요일)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 훼손지에 나무를 심는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무등산 신전대 일원에서 진행되는데 이곳은 폐목장 부지로 도깨비까지, 애기수영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유입돼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성인 기준 원호사에서 한 시간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다.

사무소 측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신전대 일원 2000m 부지에 무등산 자생수종인 굴참나무 1000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26일까지 참여할 시민을 이메일(albyssdu@knps.or.kr) 또는 전화(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 061-370-5723)로 접수받아 행사 당일 참여자 수를 고려해 목표과 개인 수목 명찰을 나눠준다. 참여자는 개인도시락과 모종상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

지산유원지에 공영주차장 건립

광주 동구 '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선정 25억원 확보

광주시 동구가 중소기업청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분야 공모에 선정됐다. 동구는 공모 지원사업비로 25억원을 확보, 지산유원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산유원지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보리밭외식업 우수지구 선정, 카페의 거리 조성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다. 동구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올해 말까지 국·시·구비 등 모두 25억 원을 들여

3467㎡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제2순환도로 지산IC진출로 개설, 지산유원지 문화채색 사업 등과 맞물려 지산유원지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거점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동구의 '대인시장의 시설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도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등 2000만원을 확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N Take Out (포장판매) featuring a large industrial fryer. Text includes: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 크기', '제품의 특징',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Images show the fryer and various cooked meats.